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만이 가득하다

정 자용의 '향수'와 육영수 여사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육천'이 나의 고향이다. 기억하는 주소는 충북 옥천군 정산면 판소리 205번지다. 한 마디로, 나는 촌놈이다. 충청도를 떠나 전주에서 생활한 지 40여 년이 지나가 버렸다. 고향의 아련한 추억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어린 시절, 아버지, 인삼과 관련한 추억은 잊을 수가 없다. 7남매의 여섯 번째 아들인 나는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했다. 어릴 적, 나의 꿈은 빨리 중학교를 마치고 도시로 탈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소작농 아버지의 억척스러운 삶의 여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보내야만 했다.



박 여 범

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육천에서 가까운 금산은 인삼의 대명사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인삼 농사가 육천에서 시작되어 많은 농작지가 인삼밭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아버지는 이웃들의 인삼 농사로 돈벌이를 하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는 가방에서는 인삼 뿌리를 우리 가족을 반갑게 해 주었다. 씹살하고 맛이 없어 뱉어내기 일쑤였던 인삼, 찹쌀과 약간의 소금을 넣어 푹 끓여서 큰술 가득 준비해 주시던 어머니의 배려가 인삼과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다.

'왜, 이 맛없는 것을 먹는 다냐?',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나는 안 먹으려다' 등 우리 형제들은 서로 먹으라고 떠밀기 일쑤였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를 화나게 하였고, 결국 몸이 제일 약한 내가 인삼을 주로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마을에서 3년 근 인삼을 캐는 날이면 잔칫날이었다. 금산에서 인부들이 와 인삼을 운종일 캐고 나면, 그 인삼밭에는 마을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부스러기 인삼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뒷집의 순남이, 해종이, 동수, 동원 이, 영자, 미숙이 등 마을 사람들은 호미와 삽, 평이 등으로 무장하고 온 가족이 인삼 찾기에 밤이 어둡도록 땅을 파헤치고 헤쳐 왔다. 여기저기서 운이 좋아 인삼 원래

모양 그대로 뿌리를 캐면, 산삼을 캔 것처럼 좋아하고 부러워하며 호미집에 더울 경쟁적으로 열중하였다. 그 결과는 너무나 풍성한 인삼이 바구니에 가득 담기는 기쁨을 선물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보약은 구경도 못하던 그 시절, 우리의 보약은 바로 수확을 마친 인삼밭을 파헤치며 모아온 인삼 뿌리였다. 그 조각난 인삼을 깨끗하게 물기를 빼고, 꿀에 썰어 놓은 뒤,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 먹여주시던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이 우리 형제를 건강하게 키워낸 토양이었다.

인삼 '이삭줍기'가 마무리된 것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동안 터득하신 기술로 인삼 농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인삼밭을 하루에 한 번씩을 꼭 들러서 한잔을 바라보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기대도 잠깐, 힘든 인삼 농사에 나는 허를 내뼐었다. 풀 메기, 인삼 꽃과 열매 따기, 농약 치기, 습기 제거를 위한 교랑정리 등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 없어 나와 형, 동생은 아침 5시부터 인삼밭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에 와서 세수만 하고 아침은 먹는 등 마는 동 도시락만 챙겨 30분을 걸어 학교에 가곤 했던 그 지겨웠던 시절이 그리운 것은 왜일까?

한 번은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인삼밭으로 우리 3형제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 프로야구 중계를 보느라 3시가 넘어 집에서 5분 거리의 인삼밭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이미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고 우리는 지게 작매기의 위험 아닌 위험 속에 일을 해야 했다. 당근, TV도 1주일 접근금지였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정말 열심히 살아 내셨던 아버지가 보고 싶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인삼 농사에 주력하셨던 아버지, 지금은 치매로 자식도 몰라보시고 요양병원에서 눈만 깜박이시는 어머니, 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인삼 죽과 인삼 도시락 반찬, 그리고 꿀과 함께 달콤하고 씹살했던 육천 정산면 판소리의 수삼이 그렇게도 지겨웠다. '니 오늘도 인삼 반찬이냐?' 내랴 바꿔 먹자 나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와 말치볶음이다 아이기?' 하며 부러워하던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이 그립다. 가끔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인삼 반찬이야기가 화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빨간 씨앗 한 말을 들고 마루를 오르며 큰소리로 삼형제를 인방으로 불러 모아 '얼굴 가득 그렇게 웃음이 가득한 모습은 처음이라! 얼떨떨할 때 고개를 숙이고 열매를 바라보다가 달달한 목소리에 귀가 놀라고

삼년이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정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단던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일일이 진실한 건강 지킴이는 한 주먹 아버지 손바닥을 누비며 높은 천장 위로 희망을 잉태하고 아무리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믿음 이 가지 않는 민병통치국이라니

파란 잎사귀와 드문드문 보이는 진실한 삼 뿌리를 확인하며 거닐던

그랑에는 서늘한 웃자락이 마를 줄 모르던 당신의 웃음만이 가득하고 철없이 지저귀던 까치는 오늘도 개구리 잡으러 다시 왔건만 멧돼지가 놀다간 멧돼지 위 어지럽게 피어난 토끼풀을 만지작거리며

튼실한 뿌리에 주렁주렁 다리를 끈 인삼마치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일곱 색깔 무지개로 피어나고, 흐르는 구름사이로 다섯 식구 웃음소리에 땅속 깊고 걸친 청산 막걸리는 봉분(封墳) 위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만 가득하다

박여범 -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만이 가득하다' 전문-

새벽부터 감감한 밤까지 인삼밭과 농사에 여념이 없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냉장고를 열어 꿀과 수삼이 썰어 있는 병을 열어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음미한다.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의 바로 이 이제는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래도 나에게서는 추억의 고향 육천 인삼이다. 우리 지역 진안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인삼의 진화

를 기대한다. 우리가 느꼈던 어린 시절 인삼의 맛이 4차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에게도 한국적인 맛과 건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인삼으로 가족을 생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 노동을 함께하며 성장한 형제자매, 치매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 주신 그 꿈은 '튼실한 뿌리에 주렁주렁 다리를 끈 인삼마치가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일곱 색깔 무지개로 피어났다. 그리고 '흐르는 구름사이로 웃음소리에 땅속 깊고 걸친 청산 막걸리는 봉분(封墳) 위 어지럽게 피어난 그리움 만 가득하다.

사설

도내 전 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북도가 도내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와 행정 명령을 내렸다. 광복절 연휴 때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북도의 행정 명령은 마땅한 조치이다. 옛것에 도내 누적 확진자수가 51명이 라고 한탄했는데 어느새 확진환자가 51명으로 불어나 버렸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시간 단위대로 불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말이지 어찌되려고 이러한 것인지 한여름 폭염 때인데도 모골이 송연하다. 본보가 어제도 비분강개를 토로 했거니와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자들을 강력 조치해야겠다. 코로나 확산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들 때문에 청정 지역인 전북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서을 사람의 제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들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도 민들에게 우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신천지 신도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사람의 제일 교회 측이 보이고 있는 행태 또한 분노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정말이지 서을 사람의 제일 교회 신도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 때문에 여간 격정이 아니다. 하루 수백 명씩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한탄스럽거나 감염원을 알수

없는 감각이 환자들의 비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다. 이리다가는 중앙 방역 본부 관계자들의 말 그대로 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들이 오히려 근심과 우환거리가 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다른 대형 교회들에서도 확진 환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방역 본부의 말대로 영상을 통한 가정 예배를 실천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다.특히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와 그 아내와 측근들이 확진 환자로 드러났는데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 지사와 차명진 전 의원 등 사람의 제일 교회 집회에 참석한 이들도 확진 환자로 드러났는데 역시나 자업자득이다. 청정 전북에서 갑자기 여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다들 긴장해야겠다. 코로나가 또 다시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지금 코로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코로나 극복의 지가 중요하다.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전북도가 이번에도 내 전지역에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마땅한 조치라 아닐 수 없다.

발전 현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미래 발전을 약속한 주요 현안들을 챙겨서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현안 추진과 관련해 성공 사례를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가 도민의 뜻에 꾸준히 부응해 듣는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열원이 다.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다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지역 발전을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우리 전북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북의 현안이 다른 지자체의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보는 지난날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여러 번 촉구한 것이 있다.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로 전기자동차 생산과 수소자동차 생산으로 정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런데 말로만 목표가 정해졌을 뿐, 아직까지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안된다. 완주군에 전국 최초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생겼다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이제 수소자동차 생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작업을 앞당기지는 것이다. 그게 군산형 일자리로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미적거렸다면 다른 지자체에게 좋은 일만 시킬지 모르겠다. 전북도가 앞장 서서 발전 현안에 추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늘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 지역보다 많다. 따라서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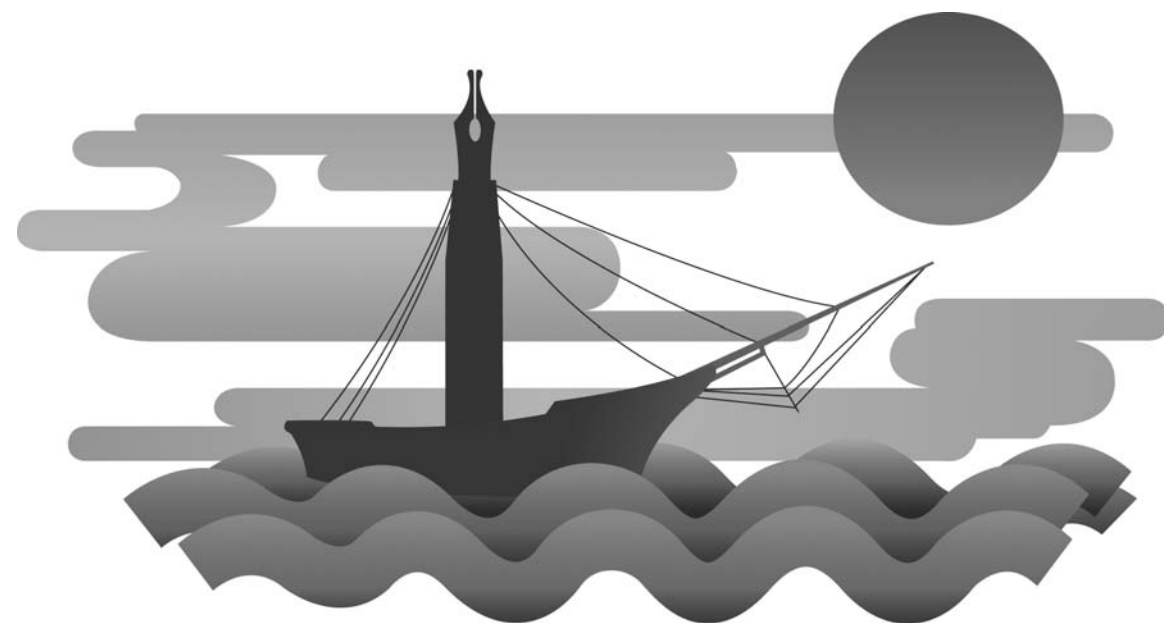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